# 제2장. 2014년도 한국학계 중국성리학 연구 현황과 전망

段倫珍(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강사)[1]

##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14년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중국성리학 연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중국 성리학은 북송시대 성리학과 남송시대 성리학으로 나누어진다. 성리학, 특히 주자학은 조선시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중국성리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상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필요한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교육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한국 주요 학술지에 실린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여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邵雍(1011~1077)으로부터 시작하여 周敦頤(1017~1073), 張載(1020~1077), 程顥,(1032~1085) 射良佐(1050~1103), 胡宏(1105~1161),과 남송시대 성리학자인 朱熹(1130~1200), 眞德秀(1178~1235)까지 모두 8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주제별 분류로 經學, 禮學, 정치·사회, 이기·심성론, 윤리·수양론, 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1) 이 글은 단윤진이 작성하고 최영진이 <평가와 전망> 가운데 일부분을 보완하였다.

##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시대 순으로 먼저 邵雍(1011~1077)으로부터 시작하여 周敦頤(1017~1073), 張載(1020~1077), 程顥,(1032~1085) 射良佐(1050~1103), 胡宏(1105~1161), 朱熹(1130~1200), 眞德秀(1178~1235)의 논문을 조사하였다.

邵雍에 관한 논문은 조도현의 「『소강절 실긔』의 설화적 특성과 유통의 실상」, (『인문학연구』, Vol. 94 No.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편이 있는데 이것은 문학관련 논문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周敦頤에 대한 논문은 주돈이의 성인관과 태극도설에 관한 논문 등 3편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송자 | 염계 주돈이의 성인관 연구 | 성균관대 석사논문 | 성균관 대학교 |
| 2 | 전용주 | 주돈이의 태극도설 연구 | 성균관대 박사논문 | 성균관 대학교 |
| 3 | 주광호 | 신화적 사유로본 북송 성리학에서 '생성'의 의미 - 『태극도설』과 『원회운세』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Vol.50 No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周敦頤에 관한 논문은 학위논문 2편(김송자(Kim, Song Ja), 「염계 주돈이의 성인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전용주(Jeon, Yong Joo), 「주돈이의 태극도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과 주광호(Joo, Kwang Ho)의 「신화적 사유로 본 북송 성리학에서 '생성'의 의미 - 『태극도설』과 『원회운세』를 중심으로」,(『철학연구』, Vol.50 No,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등이 있다.

張載에 대한 논문도 3편이 있는데 주로 '기'에 관한 논문이며 공부론에 대한 논문도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종욱 | 기일원론 및 유물론으로 간주한 장횡거 사상에 대한 논의 | 『동서철학연구』, Vol.73 No, | 한국동서철학회 |
| 2 | 부지훈 | 장재의 '大心' 공부론과 주자의 비판 - 격물치지와 연관하여 | 『동양철학연구』, Vol.78 No, | 동양철학연구회 |
| 3 | 장윤수 | 기학과 심학의 횡단적 소통 구조에 대한 연구 - 장횡거와 왕양명 이론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 Vol.130 No, | 대한철학회 |

張載에 관한 논문은 김종욱의「기일원론 및 유물론으로 간주한 장횡거 사상에 대한 논의」,(『동서철학연구』, Vol.73 No, 한국동서철학회), 장윤수의「기학과 심학

의 횡단적 소통 구조에 대한 연구 - 장횡거와 왕양명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Vol.130 No, 대한철학회), 부지훈의 「장재의 '大心' 공부론과 주자의 비판 - 격물치지와 연관하여」, (『동양철학연구』, Vol.78 No, 동양철학연구회) 등이 있다.

程顥에 관한 논문도 3편이 있는데 수양론과 심성론에 관한 것이며 문헌에 관한 연구도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홍수 | 『하남정씨유서』 『하남정씨외서』 『하남정씨잡언』의 작자 불명 어록 감별 | 『동아인문학』, Vol.20 No | 동아인문학회 |
| 2 | 안재호 | 정호 '和樂'의 수양론 관규 | 『중국학보』, Vol.69 No | 한국중국학회 |
| 3 | 정상봉 | 정명도의 천리와 인성에 대한 이해 | 『한국철학논집』, Vol.40 No | 한국철학사연구회 |

程顥에 관한 논문은 안재호( An, Jea Ho)의 「정호 '和樂'의 수양론 관규」, (『중국학보』, Vol.69 No, 한국중국학회), 정상봉(Jeong, Sang Bong)의 「정명도의 천리와 인성에 대한 이해」,( 『한국철학논집』, Vol.40 No, 한국철학사연구회), 김홍수(Kim, Hong Soo)의 「『하남정씨유서』 『하남정씨외서』 『하남정씨잡언』의 작자 불명 어록 감별」,(『동아인문학』, Vol.20 No. 동아인문학회)등이 있다.

謝良佐에 대한 논문은 심성론에 대한 논문이 1편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이현선 | 사량좌의 심성론 연구 | 『철학사상』, Vol.52 No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사량좌에 대한 논문은 이현선(Lee, Hyun Sun)의 「사량좌의 심성론 연구」,(『철학사상』, Vol.52 No,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이다.

호굉에 관한 논문은 수양과 심성에 관한 성광동의 2편의 논문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성광동 | 호굉의 인 개념 연구 | 『동서철학연구』, Vol.71 No, | 한국동서철학회 |
| 2 | 성광동 | 호굉의 본성 개념에 대한 고찰 | 『한국철학논집』, Vol. 42 | 한국철학사연구회 |

胡宏에 관한 논문은 성광동(Sung, Kwang Dong)의 「호굉의 인 개념 연구」, (『동서철학연구』, Vol.71 No, 한국동서철학회)와 「호굉의 본성 개념에 대한 고

찰」,(『한국철학논집』, Vol. 42, 한국철학사연구회) 등이 있다.

주희에 관한 논문은 36편으로 가장 많다. 주제도 매우 다양하며 경학, 예학, 이기·심성론, 윤리·수양론, 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광민 | 朱熹 미발함양의 교육 과정적 함의 | 『도덕교육연구』, Vol.26 No | 한국도덕교육학회 |
| 2 | 김경수 | 성리학의 시대와 朱熹의 환상 - 유학 현대화의 단초 모색 |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4 No,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 3 | 김도일 | 주자(朱子)의 『대학(大學)』 해석에 있어서의 실천의 문제 - 왜 지어지선(止於至善)은 독립된 강령인가? | 『퇴계학보』, Vol.136 No, | 퇴계학연구원 |
| 4 | 김상준 | 朱熹 이기론·우주론의 현대성 | 『한국학논집』, Vol.55 No |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
| 5 | 민병희 | 『사서장구집주』와 사대부 사회의 변화 | 『역사학연구』, Vol.53 No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
| 6 | 박순철 | 朱熹와 왕부지의 『시경』 음시론 비교연구 | 『중국인문과학』, Vol.158 No | 중국인문학회 |
| 7 | 박영진 | 朱熹적 사회관과 삼교 합류초심 | 『동서철학연구』, Vol. 72 No | 한국동서철학연구회 |
| 8 | 방경훈 | 朱熹의 성 개념 연구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61 No |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
| 9 | 서강휘 | 朱熹와 왕양명의 공부 본령론 | 『양명학』, Vol.37 No | 한국양명학회 |
| 10 | 성현창 | 朱熹 철학에 있어서의 공공의 의미 | 『철학논총』, Vol.75 No, | 새한철학회 |
| 11 | 손정민 | 송대 『맹자』 논변 연구 | 성균관대 석사논문 | 성균관대학교 |
| 12 | 신상후 | 朱熹의 미발지각론 | 이화여대 석사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

| | | | | |
|---|---|---|---|---|
| 13 | 심혜경, 윤미라 | 朱熹의 양생을 위한 호흡법 | 『한국체육철학학회지』, Vol.22 No.2 | 한국체육철학회 |
| 14 | 양순자 | 『역학계몽요해』의 도서역학적 의의 | 『동양철학』, Vol.40 No | 한국동양철학회 |
| 15 | 왕소난 | 朱熹와 진량의 의리 - 왕패 논변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 | 성균관대 석사논문 | 성균관대학교 |
| 16 | 이동욱 | 朱熹와 육구연의 논쟁에서 객관성의 문제 | 『철학』, Vol.120 No | 한국철학회 |
| 17 | 이승환 | 주자 '분노'관의 도덕 심리학적 고찰 | 『동양철학』, Vol.40 No, | 한국동양철학회 |
| 18 | 이유리 | 17세기 일본 전래 주자학서의 간행 | 『서지학연구』, Vol.60 No, | 서지학회 |
| 19 | 이재훈 | 朱熹 『시전집』 조풍 신구전의 비교 연구 | 『중국어문논총』, Vol.63 No | 중국어문연구회 |
| 20 | 이찬 | 도덕적 믿음 감정 그리고 도덕 동기 - 맹자와 朱熹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Vol.42 No, | 한국동양철학회 |
| 21 | 이찬 | 『맹자』 독해의 정치 철학적 함의와 經과 史의 긴장 - 사마광의 『의맹』과 朱熹의 논평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 Vol.49 No,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 22 | 이철승 | 맹자의 호연지기 사상에 대한 朱熹와 왕부지의 관점 비교 | 『유교사상문화연구』, Vol.57 No, |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 23 | 장창환 | 朱熹의 심성론 연구 | 동국대 박사논문 | 동국대학교 |
| 24 | 정현정 | 朱熹의 '극기복례' 해석에 대한 고찰 | 『동양철학연구』, Vol.80 No, | 동양철학연구회 |
| 25 | 정현정 | 朱熹 사대봉사론의 정립과 그 의미 | 『동양철학』, Vol.41 No | 한국동양철학회 |
| 26 | 조남호 | 성리학의 보편적 인간성과 차별적 민족성 | 『동서철학연구』, Vol.73 No, | 한국동서철학회 |
| 27 | 주원협 | 朱熹적 주경설 - 회통지각주의와 이성주의적 공부론 | 『율곡사상연구』, Vol.29 No |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

| | | | | |
|---|---|---|---|---|
| 28 | 지현주 | 『주자가례』에서 家人의 位를 통해 본 제자리 양상과 그 윤리적 성격 - 통례의 '정지삭막즉참'을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Vol.33 No | 전국교육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협의회 |
| 29 | 진봉원 | 朱熹 『사서장구집주』중저 도남학파 | 『퇴계학논총』, Vol.24 No | 퇴계학 부산 연구원 |
| 30 | 한상인 |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연구 | 연세대 박사논문 | 연세대학교 |
| 31 | 한상인 |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변화 연구 | 『한국교육사학』, Vol.36 No | 한국교육사학회 |
| 32 | 한자경 | 朱熹의 감정론 이성·감성의 이원성을 넘어선 마음의 허령성(영성)에 관한 논의 - 朱熹의 감정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겸함 | 『철학논집』, Vol.39 No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 33 | 홍성민 | 恕의 두 형태와 그 윤리학적 의미 - 주자와 대진의 윤리학에서 恕의 위상 | 『철학연구』, Vol.129 No | 대동철학회 |
| 34 | 홍성민 | 주자의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 | 『중국학논총』, Vol.43 No, | 한국중국문화학회 |
| 35 | 황갑연 | 모종삼의 朱熹철학 이해의 득과 실 | 『범한철학』, Vol.74 No | 범한철학회 |
| 36 | 황금중 | 朱熹와 듀이의 만남 - 한국 교육철학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 | 『한국교육사학』, Vol.36 No.2 | 한국교육사학회 |

朱熹에 관한 논문은 가장 많다. 살펴보자면 황금중의 「朱熹와 듀이의 만남 - 한국 교육철학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한국교육사학』, Vol.36 No.2 한구교육사학회), 정현정의,「朱熹의 '극기복례' 해석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Vol.80 No, 동양철학연구회)과 「朱熹 사대봉사론의 정립과 그 의미」,(『동양철학』, Vol.41 No, 한국동양철학회), 심혜경·윤미라의 「朱熹의 양생을 위한 호흡법」,(『한국체육철학학회지』, Vol.22 No.2 한국체육철학학회), 주원협의 「朱熹적 주경설 - 회통지각주의와 이성주의적 공부론」,(『율곡사상연구』, Vol. 29 No,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성현창의 「朱熹 철학에 있어서의 공공의 의미」, (『철학논총』, Vol.75 No, 새한철학회), 한자경의 「朱熹의 감정론 이성·감성의 이원성을 넘어선 마음의 허령성(영성)에 관한 논의 - 朱熹의 감정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겸함」,(『철학논집』, Vol.39 No,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박영진의 「朱熹적 사회관과 삼교 합류초심」, (『동서철학연구』, Vol.72 No, 한국동서철학회), 박순철의 「朱熹와 왕부지의 『시경』 음시론 비교연구」, (『중국인문과학』, Vol.158 No), 한상인의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변화 연구」,(『한국교육사학』, Vol.36 No, 한국교육사학회)와 「『중용』 수도

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연구」,(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재훈의 「朱熹 『시전집』 조풍 신구전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총』, Vol.63 No, 중국어문학회), 진봉원의 「朱熹 『사서장구집주』중저 도남학파」,(『퇴계학논총』, Vol.24 No, 퇴계학 부산연구원), 이 찬의 「『맹자』 독해의 정치 철학적 함의와 經과 史의 긴장 - 사마광의 『의맹』과 朱熹의 논평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Vol.49 No,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와 「도덕적 믿음 감정 그리고 도덕 동기 - 맹자와 朱熹의 논의를 중심으로」,(『동양철학』, Vol.42 No, 한국동양철학회), 김광민의 「朱熹 미발함양의 교육 과정적 함의」,(『도덕교육연구』, Vol.26 No, 한국도덕교육학회), 방경훈의 「朱熹의 성 개념 연구」,(『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61 No,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김경수의 「성리학의 시대와 朱熹의 환상 - 유학 현대화의 단초 모색」,(『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4 No,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이동욱의 「朱熹와 육구연의 논쟁에서 객관성의 문제」,(『철학』, Vol.120 No, 한국철학회), 이철승의 「맹자의 호연지기 사상에 대한 朱熹와 왕부지의 관점 비교」,(『유교사상문화연구』, Vol.57 No,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황갑연의 「모종삼의 朱熹철학 이해의 득과 실」,(『범한철학』, Vol.74 No, 범한철학회), 김도일의 「주자(朱子)의 『대학(大學)』 해석에 있어서의 실천의 문제 - 왜 지어지선(止於至善)은 독립된 강령인가?」,(『퇴계학보』, Vol.136 No, 퇴계학연구원), 홍성민의 「恕의 두 형태와 그 윤리학적 의미 - 주자와 대진의 윤리학에서 恕의 위상」, (『철학연구』, Vol.129 No, 대동철학회)과 「주자의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중국학논총』, Vol.43 No, 한국중국문화학회), 지현주의 「『주자가례』에서 家人의 位를 통해 본 제자리 양상과 그 윤리적 성격 - 통례의 '정지삭막즉참'을 중심으로」,(『윤리교육연구』, Vol.33 No, 전국 교육대학 윤리교육과 교수협의회), 조남호의 「성리학의 보편적 인간성과 차별적 민족성」,(『동서철학연구』, Vol.73 No, 한국동서철학회), 양순자의 「『역학계몽요해』의 도서역학적 의의」,(『동양철학』, Vol.40 No, 한국동양철학회), 이유리의 「17세기 일본 전래 주자학서의 간행」,(『서지학연구』, Vol.60 No, 서지학회), 신상후의 「朱熹의 미발지각론」,(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왕소난 의 「朱熹와 진량의 의리 - 왕패 논변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손정민의 「송대 『맹자』 논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장창환의 「朱熹의 심성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서강휘의 「朱熹와 왕양명의 공부 본령론」, (『양명학』, Vol.37 No, 한국양명학회), 이승환의 「주자 '분노'관의 도덕 심리학적 고찰,(『동양철학』, Vol.40 No, 한국동양철학회), 김상준의 「朱熹 이기론·우주론의 현대설」, (『한국학논집』, Vol.55 No,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민병희(의 「『사서장구집주』와 사대부 사회의 변화」,(『역사학연구』, Vol.53 No.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등 모두 36편이 있다.

진덕수에 관한 논문은 1편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한신 | 남송대 眞德秀의 민간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역사학보』, Vol.221 No | 역사학회 |

眞德秀(1178~1235)에 관한 논문은 김한신의 「남송대 眞德秀의 민간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역사학보』, Vol.221 No, 역사학회)등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정이천에 관한 논문은 1편도 없다.

## 3. 주제별 분류

### 1) 經學

經學 부분에서는 『맹자』, 『중용』, 『시경』, 『시전집』, 『사서장구집주』, 『역학계몽요해』 등 다양한 경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주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7편의 논문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손정민 | 송대 『맹자』 논변 연구 | 성균관대 석사논문 | 성균관대학교 |
| 2 | 진봉원 | 朱熹 『사서장구집주』중저 도남학파 | 『퇴계학논총』, Vol.24 No | 퇴계학 부산 연구원 |
| 3 | 한상인 |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변화 연구 | 『한국교육사학』, Vol.36 No | 한국교육사학회 |
| 4 | 한상인 |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연구 | 연세대 박사논문 | 연세대학교 |
| 5 | 박순철 | 朱熹와 왕부지의 『詩經』 음시론 비교연구 | 『중국인문과학』, Vol.158 No | 중국인문학회 |
| 6 | 이재훈 | 朱熹 『시전집』 조풍 신구전의 비교 연구 | 『중국어문논총』 Vol.63 No | 중국어문학회 |
| 7 | 양순자 | 『역학계몽요해』의 도서역학적 의의 | 『동양철학』, Vol. 40 No | 한국동양철학회 |

경학 부분에서는 한상인의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변화 연구」,

(『한국교육사학』, Vol.36 No, 한국교육사학회)와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진봉원, 「朱熹 『사서장구집주』중저 도남학파」, 『퇴계학논총』, Vol.24 No, 퇴계학 부산연구원), 손정민의 「송대 『맹자』 논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논문)등이 있고 이재훈의 「朱熹 『시전집』 조풍 신구전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총』, Vol.63, 중국어문연구회), 박순철의 「朱熹와 왕부지의 『시경』 음시론 비교연구」,(『중국인문과학』, Vol.158 No), 한상인의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변화 연구」,(『한국교육사학』, Vol.36 No, 한국교육사학회)와 「『중용』 수도지교에 대한 朱熹의 이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재훈의 「朱熹 『시전집』 조풍 신구전의 비교 연구」, (『중국어문논총』, Vol.63 No, 중국어문학회), 양순자의 「『역학계몽요해』의 도서역학적 의의」,(『동양철학』, Vol.40 No, 한국동양철학회) 등이 있다.

### 2) 禮學

예학에 관한 논문은 3편으로 특히 주희의 예학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 진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정현정 | 朱熹의 '극기복례' 해석에 대한 고찰 | 『동양철학연구』, Vol.80 No | 동양철학연구회 |
| 2 | 정현정 | 朱熹 사대봉사론의 정립과 그 의미 | 『동양철학』, Vol.41 No, | 한국동양철학회 |
| 3 | 지현주 | 『주자가례』에서 家人의 位를 통해 본 제자리 양상과 그 윤리적 성격 - 통례의 '정지삭막즉참'을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Vol.33 No | 전국교육대학 윤리교육과 교수연구협의회 |

예학의 경우는 지현주의 「『주자가례』에서 家人의 位를 통해 본 제자리 양상과 그 윤리적 성격 - 통례의 '정지삭막즉참'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Vol.33 No, 전국교육대학 윤리교육과 교수연구협의회), 정현정「朱熹의 '극기복례' 해석에 대한 고찰」,(『동양철학연구』, Vol.80 No, 동양철학연구회)과 「朱熹 사대봉사론의 정립과 그 의미」, (『동양철학』, Vol.41 No, 한국동양철학회)등의 논문이 있다.

### 3) 정치·사회

정치·사회 부분에서는 6편의 논문이 있는데 유학의 현대화를 모색하고 공공의 의미와 사대부 사회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경수 | 성리학의 시대와 朱熹의 환상 - 유학 현대화의 단초 모색 |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4 No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 | | | | |
|---|---|---|---|---|
| 2 | 김한신 | 남송대 眞德秀의 민간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 『역사학보』, Vol.221 No | 역사학회 |
| 3 | 민병희 | 『사서장구집주』와 사대부 사회의 변화 | 『역사학연구』, Vol.53 No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
| 4 | 성현창 | 朱熹 철학에 있어서의 공공의 의미 | 『철학논총』, Vol.75 No | 새한철학회 |
| 5 | 박영진 | 朱熹적 사회관과 삼교 합류초심 | 『동서철학연구』, Vol. 72 No | 한국동서철학연구회 |
| 6 | 이찬 | 『맹자』 독해의 정치 철학적 함의와 經과 史의 긴장 - 사마광의 『의맹』과 朱熹의 논평을 중심으로 | 『철학연구』, Vol.49 No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정치·사회 부분에서는 민병희의 「『사서장구집주』와 사대부 사회의 변화」, (『역사학연구』, Vol.53 No,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성현창, 「朱熹 철학에 있어서의 공공의 의미」,(『철학논총』, Vol.75 No, 새한철학회), 김한신의 「남송대 眞德秀의 민간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역사학보』, Vol.221 No, 역사학회), 김경수의 「성리학의 시대와 朱熹의 환상 - 유학 현대화의 단초 모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4 No, 경북대학교 퇴계학 연구소)등이 있고 박영진의 「朱熹적 사회관과 삼교 합류초심」, (『동서철학연구』, Vol.72 No, 한국동서철학회), 이 찬(Lee, Chan)의 「『맹자』 독해의 정치 철학적 함의와 經과 史의 긴장 - 사마광의 『의맹』과 朱熹의 논평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Vol.49 No,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등의 논문이 있다.

### 4) 이기·심성론

이기·심성론은 모두 12편이며 주희 뿐만이 아니라 호굉, 사량좌, 정명도 등 북송 성리학자의 심성론과 주돈이의 태극도설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번호 | 집필자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상준 | 朱熹 이기론·우주론의 현대성 | 『한국학논집 Vol.55 No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2 | 방경훈 | 朱熹의 성 개념 연구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61 No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 3 | 성광동 | 호굉의 본성 개념에 대한 고찰 | 『한국철학논집』, Vol.42 | 한국철학사 연구회 |

| | | | | |
|---|---|---|---|---|
| 4 | 이현선 | 사량좌의 심성론 연구 | 『철학사상』 Vol.52 No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 5 | 장창환 | 朱熹의 심성론 연구 | 동국대 박사논문 | 동국대학교 |
| 6 | 정상봉 | 정명도의 천리와 인성에 대한 이해 | 『한국철학논집』, Vol. 40 No | 한국철학사연구회 |
| 7 | 신상후 | 朱熹의 미발지각론 | 이화여대 석사논문』 | 이화여자대학교 |
| 8 | 한자경 | 朱熹의 감정론 이성·감성의 이원성을 넘어선 마음의 허령성(영성)에 관한 논의 - 朱熹의 감정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겸함 | 『철학논집』, Vol.39 No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 9 | 이동욱 | 朱熹와 육구연의 논쟁에서 객관성의 문제 | 『철학』 Vol.120 No | 한국철학회 |
| 10 | 김종욱 | 기일원론 및 유물론으로 간주한 장횡거 사상에 대한 논의 | 『동서철학연구』 Vol.73 No | 한국동서철학회 |
| 11 | 전용주 | 주돈이의 태극도설 연구 | 성균관대 박사논문 | 성균관대학교 |
| 12 | 주광호 | 신화적 사유로본 북송 성리학에서 '생성'의 의미 - 『태극도설』과 『원회운세』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Vol.50 No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

이기·심성론 부분은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김상준, 「朱熹 이기론·우주론의 현대성」, (『한국학논집』, Vol.55 No,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과 전용주의 「주돈이의 태극도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주광호의「신화적 사유로본 북송 성리학에서 '생성'의 의미 - 『태극도설』과 『원회운세』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Vol.50 No,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김종욱의 「기일원론 및 유물론으로 간주한 장횡거 사상에 대한 논의」, (『동서철학연구』, Vol.73 No, 한국동서철학회), 이동욱의 「朱熹와 육구연의 논쟁에서 객관성의 문제」, (『철학』, Vol.120 No, 한국철학회)등이 있고 심성론에 관한 논문으로 방경훈의 「朱熹의 성 개념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61 No, 원광대학교 불교사상연구원), 장창환의 「朱熹의 심성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논문), 이현선의 「사량좌의 심성론 연구」, (『철학사상』, Vol.52 No,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정상봉의 「정명도의 천리와 인성에 대한 이해」,(『한국철학논집』, Vol.40 No, 한국철학사연구회), 성광동의 「호굉의 본성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철학논집』, Vol.42 No, 한국철학

사연구회)등이 있고 신상후의 「朱熹의 미발지각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한자경의 「朱熹의 감정론 이성·감성의 이원성을 넘어선 마음의 허령성(영성)에 관한 논의 - 朱熹의 감정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겸함」,(『철학논집』, Vol.39 No,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등이 있다.

### 5) 윤리·수양론

윤리 수양에 관한 논문은 무두 16편으로 주제별 분류 중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내용도 매우 다양하며 주자 외에도 주돈이, 장재, 정호, 호굉등 다양한 학자들의 윤리 수양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광민 | 朱熹 미발함양의 교육 과정적 함의 | 『도덕교육연구』, Vol.26 No | 한국도덕교육학회 |
| 2 | 김도일 | 주자(朱子)의 『대학(大學)』 해석에 있어서의 실천의 문제 - 왜 지어지선(止於至善)은 독립된 강령인가? | 『퇴계학보』, Vol.136 No, | 퇴계학 연구원 |
| 3 | 김송자 | 염계 주돈이의 성인관 연구 | 성균관대 석사논문 | 성균관대학교 |
| 4 | 성광동 | 호굉의 인 개념 연구 | 『동서철학연구』 Vol.71 | 한국동서철학회 |
| 5 | 안재호 | 정호 '和樂'의 수양론 관규 | 『중국학보 Vol.69 | 한국중국학회 |
| 6 | 이승환 | 주자 '분노'관의 도덕심리학적 고찰 | 『동양철학』 Vol.40 | 한국동양철학회 |
| 7 | 이찬 | 도덕적 믿음 감정 그리고 도덕 동기 - 맹자와 朱熹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 Vol.42 No, | 한국동양철학회 |
| 8 | 주원협 | 朱熹적 주경설 - 회통지각주의와 이성주의적 공부론 | 『율곡사상연구』, Vol.29 No |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
| 9 | 홍성민 | 주자의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 | 『중국학논총』, Vol.43 No, | 한국중국문화학회 |
| 10 | 부지훈 | 장재의 '大心' 공부론과 주자의 비판 - 격물치지와 연관하여 | 『동양철학연구』, Vol.78 No, | 동양철학연구회 |

| | | | | |
|---|---|---|---|---|
| 11 | 서강휘 | 朱熹와 왕양명의 공부 본령론 | 『양명학』 Vol.37 | 한국양명학회 |
| 12 | 왕소난 | 朱熹와 진량의 의리 - 왕패 논변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 | 성균관대 석사논문 | 성균관 대학교 |
| 13 | 이철승 | 「맹자의 호연지기 사상에 대한 朱熹와 왕부지의 관점 비교」 | 『유교사상 문화연구』, Vol.57 No, |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 14 | 홍성민 | 恕의 두 형태와 그 윤리학적 의미 - 주자와 대진의 윤리학에서 恕의 위상 | 『철학연구』, Vol.129 No | 대동철학회 |
| 15 | 황금중 | 朱熹와 듀이의 만남 - 한국 교육철학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 | 『한국교육사학』, Vol.36 No.2 | 한국교육사학회 |
| 16 | 심혜경, 윤미라 | 朱熹의 양생을 위한 호흡법 | 『한국체육철학학회지』, Vol.22 No.2 | 한국체육철학회 |

윤리·수양론에 관한 논문으로는 안재호의 「정호 '和樂'의 수양론 관규」, (『중국학보』, Vol.69 No, 한국중국학회), 주원협, 「朱熹적 주경설 - 회통지각주의와 이성주의적 공부론」, (『율곡사상연구』, Vol.29 No,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김광민의 「朱熹 미발함양의 교육 과정적 함의」, (『도덕교육연구』, Vol.26 No, 한국도덕교육학회), 이승환의 「주자 '분노'관의 도덕 심리학적 고찰, (『동양철학』, Vol.40 No, 한국동양철학회), 김도일의 「주자(朱子)의 『대학(大學)』 해석에 있어서의 실천의 문제 - 왜 지어지선(止於至善)은 독립된 강령인가?」, (『퇴계학보』, Vol.136 No, 퇴계학연구원), 홍성민의 「주자의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 (『중국학논총』, Vol.43 No, 한국중국문화학회), 김송자의 「염계 주돈이의 성인관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이 찬의 「도덕적 믿음 감정 그리고 도덕 동기 - 맹자와 朱熹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철학』, Vol.42 No, 한국동양철학회)등이 있다. 서강휘의 「朱熹와 왕양명의 공부 본령론」, (『양명학』, Vol.37 No, 한국양명학회), 왕소난의 「朱熹와 진량의 의리 - 왕패 논변에 관한 교육학적 해석」, (성균관대학교 석사 논문), 홍성민, 「恕의 두 형태와 그 윤리학적 의미 - 주자와 대진의 윤리학에서 恕의 위상」, (『철학연구』, Vol.129 No, 대한철학회), 황금중의 「朱熹와 듀이의 만남 - 한국 교육철학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한국교육사학』, Vol. 36 No.2, 한국교육사학회), 부지훈의 「장재의 '大心' 공부론과 주자의 비판 - 격물치지와 연관하여」, (『동양철학연구』, Vol.78 No, 동양철학연구회), 이철승의 「맹자의 호연지기 사상에 대한 朱熹와 왕부지의 관점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Vol.57 No,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심혜경·윤미라의 「朱熹의 양생을 위한 호흡법」, (『한국체육철학학회지』, Vol.22 No.2, 한국체육철학학회) 등이 있다.

### 6) 기타

기타 논문으로는 모두 5편이 있다.

| 번호 | 저자명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
|---|---|---|---|---|
| 1 | 김홍수 | 『하남정씨유서』 『하남정씨외서』 『하남정씨잡언』의 작자 불명 어록 감별 | 『동아인문학』, Vol.20 No | 동아인문학회 |
| 2 | 이유리 | 17세기 일본 전래 주자학서의 간행 | 『서지학연구』, Vol. 60 No, | 서지학회 |
| 3 | 황갑연 | 모종삼의 朱熹철학 이해의 득과 실 | 『범한철학』, Vol.74 No | 범한철학회 |
| 4 | 조남호 | 성리학의 보편적 인간성과 차별적 민족성 | 『동서철학연구』 Vol.73 | 한국동서철학회 |
| 5 | 장윤수 | 기학과 심학의 횡단적 소통구조에 대한 연구 | 『철학연구』 Vol.130 | 대한철학회 |

기타 논문으로는 이유리(Lee, You Ri)의 「17세기 일본 전래 주자학서의 간행」, (『서지학연구』, Vol.60 No, 서지학회), 황갑연(Hwang, Gap Yeon)의 「모종삼의 朱熹철학 이해의 득과 실」, (『범한철학』, Vol.74 No, 범한철학회)등이 있고 장윤수(Jang, Yun Soo)의 「기학과 심학의 횡단적 소통 구조에 대한 연구 - 장횡거와 왕양명 이론을 중신으로」, (『철학연구』, Vol.130 No, 대한철학회). 조남호(Cho, Nam Ho)의 「성리학의 보편적 인간성과 차별적 민족성」, (『동서철학연구』, Vol.73 No, 한국동서철학회)등이 있고 김홍수(Kim, Hong Soo)의 「『하남정씨유서』 『하남정씨외서』 『하남정씨잡언』의 작자 불명 어록 감별」,(『동아인문학』, Vol.20 No. 동아인문학회)등이 있다.

##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위의 논문 중 몇 개를 선별하여 분석해 보았다.

1) 이승환은 「주자 '분노'관의 도덕심리학적 고찰 = Zhu Xi's View on Anger and its Moral Psychological Implications」에서 '분노'에 대한 주자의 견해를 도덕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도가와 불교 그리고 스토아 학파에서는 '분노'를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간주하였지만 이와 달리 주자는 '분노'란 분노할만한 사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간주한다. 주자에 의하면, 마

음의 본래모습은 거울과도 같아서 당면 사태를 '있는 그대로' 표상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주자는 감정과 관련하여 강한 인지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승환은 말한다. '분노'의 감정이 당면 사태에 대한 정당하고도 객관적인 반응이라면 감정의 오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승환은 "주자는 감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라고 하여 하나는 현상의식의 심층에 깔려있는 자기중심적 신념체계 즉 '사심'(私心)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선행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응어리져서 지속적으로 후속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체류'(滯留)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수양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가 깨끗하게 극복될 때 주체는 다시금 객관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획득된 감정의 '무사성'(無私性)은 덕스러운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도덕심리학적 필수조건이 된다는 것이 이승환의 주장이다. 그의 논문은 '분노'라는 새로운 주제로 매우 참신하게 접근하여 결국은 수양론으로 귀결된다.

2) 이찬은 「도덕적 믿음, 감정, 그리고 도덕동기 : 『맹자』와 朱熹의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도덕 동기를 둘러싼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행위와 판단을 촉발하는 심적 상태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이찬은 도덕적 믿음과 욕구에 관련되는 현대의 철학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맹자』의 '곡속장'과 '웅장장'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朱熹의 해석을 근거로 도덕동기의 성리학적 해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믿음과 욕구 사이에서 길항하는 도덕동기 논쟁은 인과적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결국 "무엇이 도덕행위를 촉발하느냐?"라는 이유의 본질을 찾는 질문이다. 그에 반해, 성리학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도덕 실천을 행하는가?"라는 실천론에 그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는 결국 마음의 수양, 감정의 중절 문제로 연결되는 수순을 밟는다. 감정의 중절 논의는 도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입각할 때, 진리의 확정자를 내면화하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3) 한자경은 「朱熹의 감정론 -이성-감성의 이원성을 넘어선 마음의 허령성(영성)에 관한 논의: 朱熹의 감정론에 대한 인지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겸함- = 朱熹哲學的 感情論」에서 "서양 전통철학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논해진데 반해, 최근 감정 인지주의자들은 감정이 이성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합리성과 지향성에 입각한 인지적 성격을 지님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한자경은 동양철학 연구자들이 이러한 최근의 연구추세에 따라 유학에서의 '공적 도덕적 감정'을 인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朱熹의 '공적 도덕적 감정'을 인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이성-감성의 이성은 감정의 기반으로 작용할 경우에도 여전히 사유로써 보편을 지향하는 추상적 사유능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한자경은 朱熹에서의 '공적 도덕적 감정'은 개인적 신체성과 결부된 감성에서 비롯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상적 사유능력으로서의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성-감성의 이원성을 넘어선 심층 마음의 허령성(영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밝혔다. 성리학에서 마음의 '허령성'은 일체의 분별적 경계를 넘어서서 '비어있되 신령하게 깨어있는 성품'을 뜻한다. 한자경은 이러한 마음의 허령성(영성)이 어떤 의미에서 서양 근대의 이성과 구분되는지, 그리고 성리학의 도덕적 감정은 어떤 의미에서 이성 확장이 아니라 심층 마음의 영성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논하였다.

## 5. 평가와 전망

2014년도 한국의 유학 연구 현황 중 중국의 송대 유학 논문은 총 49편이 발견되었다. 먼저 인물별로 분류하여 보면 주돈이 3편, 장재 3편, 정호 3편, 사량좌 1편, 호굉 2편, 朱熹 36편, 眞德秀 1편으로 朱熹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4년도 송대 유학 석·박사 논문은 총 8편(박사 3편, 석사 5편)인데 그 중 6편(박사 2편, 석사 4편)이 주희에 대한 논문이다.

송대 유학은 이기·심성론, 윤리·수양론, 정치·사회, 경학, 예학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송대 유학 연구 논문도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주제별로 분류한 논문을 보자면 경학 7편, 예학 3편, 정치·사회 6편, 이기·심성론 12편, 윤리·수양론 16편, 기타 5편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윤리·수양론이다. 윤리·수양론은 주자 외에도 다양한 유학자의 윤리·수양론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주자가 대세를 이루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기·심성론 부분에서도 朱熹의 심성론만이 아니라 호굉, 사량좌, 정명도 등의 다양한 학자의 심성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역시 주희에 관한 논문이 제일 많다. 뒤를 이어 경학에 관한 논문이 7편 그리고 정치·사회에 관한 논문이 6편, 예학에 관한 논문 3편, 기타 5편이다

朱熹의 철학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학문적, 사상적 기초가 되는 북송시대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朱熹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북송성리학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논문이 朱熹 에게만 편향돼 있는 현상은 이해할 순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아쉬움이 있다. 정이천에 대한 논문은 1편도 없었으며 소옹에 대한 논문은 1편 있었지만 유학 논문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주희에 대한 논문에는 '리와 기', '심 · 성 · 정' 등 기초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특히 한자경의 경우 '성이  발하여 정이된다[性發爲情]'의 그 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 정 ·의' 등 마음의 작용 전체를 의

미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주희는 감정을 이성의 발현으로 간주한 것이 된다”(13쪽)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은 정감만이 아니라 이성적/비이성적 사유, 그리고 도덕적/비도덕 의지와 정감 등 마음의 작용 전체이며 성은 그 형이상학적 근거이다. 그러므로 ‘성[리]이 발한 정에 어떻게 불선함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필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승환의 주장도 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결정적 오류는 사단 및 도심과 같은 ‘공적 도덕적 정감’의 근원은 ‘허령성’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필자는 그 전거로 주자가 명덕에 대하여 『대학』의 주석에서 제시한 ‘허령불매(虛靈不昧)’와 「중용서문」에 나오는 인심도심설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을 들고 있다. 필자의 오류는 “성리학에서 허령불매는 미발이 마음활동을 지시하는 말이다”(24쪽)라는 구절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자는 아무런 전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성리학은 이 허령불매의 마음활동을 미발지각이라고 부른다”라는 주장의 전거로 제시한 주 30번에는 이 주장의 정당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2)]

필자가 『대학장구대전』에 편집되어 있는 “허령불매는 명(明)이고, ‘구중리응만사(具衆理應萬事)’는 덕이고, ‘구중리’는 …미발(未發)이고 ‘응만사’는 …이발(已發)이다”라는 주석을 검토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령불매한 명덕[마음]은 미발과 이발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주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허한 것[心虛者]은 마음의 고요함[寂]이요 영명함[靈]은 마음의 감응[感]이다”라는 주석에서는 영명함을 이발(已發)한 마음의 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영명함이 어떻게 미발이고 “감성이나 이성보다 더 깊은 심층마음의 영성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중용서문」에서 주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마음의 허령지각은 하나이지만 ‘형기(形氣)’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사적인 ‘인심’이 되고 ‘성명(性命)’에서 근원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공적인 ‘도심’이 된다. ‘공적 도덕적 마음’은 성명, 즉 ‘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3)] 그러므로 퇴계는 사단을 ‘리가 발현한 것[四端 理之發]’ 또는 ‘리에서 발동한 것[四端 發於理]’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깊이 있는 학문연구와 성찰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접목된 송대 유학의 다양한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 한다.

---

2) 필자가 전거로 제시한 『주자전서』 권 42,「답호광중」5에는 ‘허령불매’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필자는 『중용장구대전』에 편집되어 있는 “허령은 마음의 본체이고 지각은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주석을 전거로 ‘허령’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 주석은 허령과 지각을 대비하여 체용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주석에 의거하면 ‘허령’은 마음의 모든 작용의 본체이며, 지각은 마음의 모든 작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허령’을 공적 도덕심의 근원이라는 필자의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